

남자의 등장

1.

암전 상태에서 .

시월 (소리) 이 낯선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읽고 계실지 문득 생각합니다. 생각하며 예상되는 궁금증의 답을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윤시월입니다. 시월에 태어나 시월이 되었습니다.

무대 밝아지면

바람이 세차게 불지 않는 한낮의 겨울.

미숙,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걸레를 걸레질하기 쉽게 접고 있다.

대략적인 미숙의 집 구조는

가운데 마당을 기준으로

안채와 별채 따로 있다. 안채는 미숙이 머물고, 별채는 그동안 세를 쳤던 곳.

별채 맞은 편은 야외 수돗가.

마당에는 평상 놓여있다.

시월 (소리) 나이는 서른다섯입니다.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다, 얼마 전 문을 닫았습니다. 쉬며 걸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멈춰도 걸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숙, 살얼음이 얹은 평상을 닦아나가기 시작한다.

시월 (소리) 그러다 이 마을에 발이 달았습니다. 마을이 아름답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처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단기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몇몇 곳을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미숙, 닦은 걸레 한쪽에 두고 원터치 텐트를 펼친다.

펼친 원터치 텐트 평상 위에 올린다(전체 평상의 반 정도 차지).

시월 (소리) 저는 995번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덩그러니 외로이 서 있는 아주머니의 집만을 원했습니다. 계약은 쉽지, 아니 불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더는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다고 했다며.

미숙,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노끈을 가져와 펼쳐놓은 원터치 텐트와 평상을 묶기 시작한다.

시월 (소리)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 흔한 핸드폰도 집 전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버리라 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작업을 마친 미숙, 한쪽에 둔 닦은 걸레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
미숙, 뒤돌아보고
조심스럽게 대문 열리면
30인치 정도 되어 보이는 캐리어 들고 시월, 들어온다.

시월 (.....)

미숙 (.....)

잠시 서로를 보는.
잠잠하던 겨울바람 세차게 ‘휙’ 불었다가 사라진다.

2.

시월, 추운지 몸 움츠리며 대문 열고 들어온다. 그러다 멈칫.
미숙, 그런 시월을 보는. 아니, 기다리고 있었던.

시월 왜 나와 계세요?

미숙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월 말씀하세요.

미숙 그쪽... 시월씨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서요, 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오면. 그
게 뭔지 물고 싶어서 대문 열리는 소리에 나와 기다렸어요.

시월 향기가 아니라 냄새예요. 그저 포도향 섞인 담배 냄새.

미숙 그게 한 시간 두 시간 텁을 두고 대문 여는 이유예요?

시월 죄송해요. 끊을 수는 없어서요.

미숙 마당에서 피우면 되잖아요.

시월 냄새가 퍼지잖아요. 담배는 몸에 해롭거든요.

피식 웃어 보이고는 시월, 방으로 들어간다.

미숙, 그런 시월의 방문에 한동안 시선.

미숙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그건 나도 알아.

미숙, 마당 한쪽 창고로 들어간다.
무언가 뒤적뒤적하는 소리.
이윽고 먼지가 뿐얗게 앉은 스탠드 재떨이 들고나온다.
들고나온 스탠드 재떨이 야외 수돗가 쪽으로 가져가는.
야외 수돗가에는 커다란 대야가 있고, 거기에는 물 받아져 있다.
미숙, 바가지로 물 퍼서 스탠드 재떨이 씻어나간다.
손이 시린지 중간중간 ‘호호’ 입김 불어가며.
씻은 스탠드 재떨이 마른걸레로 닦고는 시월의 방문 앞에 놓아둔다.

미숙 (...)

머뭇거리다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방문 열리고 시월, 나온다.

미숙 여기서 피워요.

시월 어디서 났어요?

미숙 뒀던 게 생각나서요.

시월 담배 피우세요?

미숙 궁금하긴 했지만, 피워본 적은 없어요. 어디서 난지는 기억 안 나요. 창고에 있다는 건 기억났지만.

시월, 호주머니에서 담뱃갑 꺼낸다.
입에 담배 한 개비 물고, 라이터를 켜는.
잘 켜지지 않는다. 몇 번의 시도 끝 불이 붙은 담배.
그런 시월을 안 보는 체 보는 미숙.
시월, 깊이 빨아들이고, 연기 내뱉는다.
미숙, ‘내가 왜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지?’ 자각하고 자리 뜨려는데.

시월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숙, 멈칫하고 시월 본다.

시월 무슨 마음으로 허락한 건지 궁금해요.

미숙 (...)

시월 아, 오해는 마세요. 감사한데... 감사한 거랑 궁금한 거는 또 다르잖아요.
편지에도 썼듯이 부동산에서는 절대 불가능이라

미숙 (말 자르며) 마을이 아름답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다는 말.

시월 (...)

미숙 나도 그랬거든요.

시월 (. . .)

미숙 그게 이 마을에 집을 짓고 살게 된 이유에요.

시월 (. . .)

미숙 담배 태우세요.

미숙, 안채로 들어간다.

시월, 안채 바라보며 담배를 연신 빨아당기는.

무표정에 가깝지만 서늘하다.

다 태운 담배 손가락 끝으로 ‘탁탁’ 털어 끄고는 스탠트 재떨이에 넣는다.

‘카악 뉴’ 가래와 함께.

3.

겨울바람 세차게 불고 있다.

시월, 날려가기 직전의 원터치 텐트 새로 묶기 시작한다.

바람이 걱정되어 나온 미숙, 그런 시월을 보는.

시월 군대 가면 이런 시시한 거나 배우거든요. (미숙 보며 피식) 매듭은 이렇게 둘어야 풀리지 않아요.

시월, 반대편 위치의 매듭도 묶기 시작한다.

미술 고마워요.

시월 그런데 평상에 테트를 물는 이유는 뭐예요?

미숙 잠이 오지 않을 때나... / 잠드는 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갑갑할 때 앓아 있기도 좋고. 근데 근래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습관처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이맘때만 되면.

시월 갑갑하세요?

미숙 조금... 아니 어쩌다 한 번씩이요.

시월 그럼 떠나면 되잖아요? 유배 사는 것도 아니고.

미숙 겁이 많나 보죠.

시월 처음부터요? (‘무슨 말인가?’ 하고 보는 미숙 보며) 나이가 겁쟁이로 만드는 경우도 많다니까.

미숙 그건 모르겠네요.

시월 (‘툭’) 생각하기 싫은 걸지도.

작업을 마친 시월, 먼지 털기 위해 손바닥 ‘탁탁’ 소리 내 터는.

미숙 고마워요.

시월 좀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것보다 부탁이 있어요.

미숙 말씀하세요.

시월 반말하세요.

미숙 (...)

시월 친해지고 싶거든요.

미숙 그건...

시월 갑갑하다면서요. 낯설게 하기. 본인을 낯설게 만들어 봐요. 그럼 신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문 정도는 열릴지 누가 알아요?

미숙, 머뭇거린다.

시월, 호주머니에서 담뱃갑 꺼내며.

시월 알겠어요?

미숙 ...그래.

4.

시월, 안채 현관문 두드린다.

오래지 않아 미숙, 문 여는.

미숙 들어와.

시월 황송하다고 해야겠죠? 부동산 아저씨는 대문 여는 것도 불가능 할거랬는데 이렇게 안채까지 진격하게 됐으니.

미숙 평상 텐트, 고마워 그런 거야.

시월 추워요.

시월, ‘자기 집인 것처럼’ 앞장서 들어간다.

미숙 (...)

미숙, 현관문 닫고 들어가는.

안으로 들어온 시월은 거실을 고갯짓으로 ‘뱅’ 둘러보고 있다.

미숙, 그런 시월 훌깃 보고는 부엌으로.

시월 혼자 지내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미숙, 완성된 감자 부침개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시월, 의자 빼 앓고.

미숙 젊어 욕심이 지나쳤나 봐. 되돌린다면 천장도 좀 더 낮게, 거실도 좀 더 작게 지었을 텐데.

시월 젊은이란 게 그런 거라잖아요.

미숙 (작게 웃으며) 누가 보면 지나온 사람인 줄.

시월 아줌마 웃는 건 첨보네요. 보기 좋아요.

미숙, 그 말에 당황, 시선 피한다.

시월 먹으면 되죠? 잘 먹겠습니다.

시월, 부침개 크게 찢어 입에 가득 넣고 씹는다.
이번엔 적당한 크기로 찢어 미숙의 입가에 내미는.
당황하는 미숙.

미숙, 본인의 젓가락으로 시월이 찢어준 부침개 입에 넣고 씹는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동네 여자, 언제나처럼 내 집처럼 성큼성큼 걸어 부엌 쪽으로.

동네 여자 이게 무슨 냄새야. 감자전 아냐? (시월의 뒷모습 보고는) 엄마야!

시월 별채 세입자입니다.

미숙,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긴장해 있다.

시월 남자가 필요한 일을 좀 했거든요. (당황해하는 동네 여자 보고 웃으며) 평상과 텐트 매듭 다시 묶어줬어요.

동네 여자, 그제야 이해되었다는 듯 의자 빼 않고 미숙, 젓가락 건네준다.

동네 여자 언니 죽었나 확인하러 왔어. 천성이 숨죽인 나물이라도 이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코빼기는 비추던 사람이 영 소식 없어서. 죽었으면 장사 치려주러.

동네 여자, 말해 놀고 소리 내 웃는다. 갑자전 욱여넣는다.

미숙 좀 더 구울까?

동네 여자 막걸리는 없어?

미숙 그건 없어.

둘네 여자 그걸 그만해. 둘치미에 밥 말아 먹고 왔어. (시월 보며) 출각 더 먹을 거면

시월 윤시월입니다.

미숙 이름 들어도 금방 까먹고, 총각이 더 편해요. (미숙 보며) 총각 더 먹을 거면 구워주던가.

시월 저도 그만이요.

동네 여자 얼마나 있을 거예요?

시월 글쎄요. 기한을 정해두진 않아서.

동네 여자 총각이 앉은 그 자리 내 자리예요. 언니 집에 오면 늘 내가 앉는 자리.

시월 바꿔드려요?

동네 여자 언니 집이 동네 여자들 사랑방이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라 여편네들 움직이기 귀찮아 잠잠이지만, 봄 되면 개구리 깨나듯 쉴 새 없이 튀어 올라와요.

시월 (미숙 보며) 인기가 많으시네요?

미숙 모일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그래.

동네 여자 웬일이야?

미숙 뭐가?

동네 여자 뜨내기 별채 세입자들 그렇게 들락거려도 말 놀은 적 없던 사람이. (시월 보며) 총각 점수 잘 땠네요?

시월, 미숙을 보며 웃어 보인다.

미숙, 애써 표정 숨기고.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동네 여자 바람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누구 올 사람 있어?

미숙,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시월, 따라 일어나며.

시월 저도 건너가 볼게요. 제 자리에 앉으세요.

동네 여자 (능글맞게) 그럼 총각 온기나 느끼며 앉아 볼까.

동네 여자, 시월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다.

시월, 부엌 빠져나와 거실로 가면.

현실 (있는 힘껏 반갑게) 오빠!

현실 옆에는 24인치 정도 되어 보이는 캐리어 있다.

현관의 현실, 당장에라도 시월에게 달려들 기세.

시월, 미숙의 표정 살피고

미숙, 애써 덤덤히 허공을 보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감정을 감추고 있는 거 같기도.

소리에 빼꼼히 내다보는 동네 여자.

5.

조심스럽게 열리는 안채 현관문.

미숙, 나온다. 손에는 집게와 검은 비닐 들려있다.

스탠드 담뱃대에 있는 담배꽁초 집게로 집어 검은 비닐에 담는다.

그런데 시월의 방에서 신음 흘러나온다.

미숙 (...)

미숙, 꽁초 정리 마쳤는지, 집게 한쪽에 두고 검은 비닐도 묶고 되돌아가려다 멈칫.

미숙 (...)

미숙, 천천히 걸어와 평상에 앉는다.

방 안의 신음은 더욱 격하다.

미숙 (...)

미숙, 얼음처럼 굳어있다.

신음은 멈추지 않고 보란 듯이 거세어진다.

6.

시월, 상의 입고 있다.

현실, 핸드백에서 담배 꺼내 라이터 켜려는데.

시월 방에서 피우지 마. 문 앞에 바로 담뱃대 있잖아.

현실 추워서 나가기 싫어.

시월 그럼 담배를 피우지 말던가.

시월 아무튼 싫어. 싫다는 짓 하지 마.

현실, 입 다시고는 담배 담뱃갑에 집어넣는다.

현실 그건 그렇고. 얘기는 좀 해봤어?

시월 아직

시월 물소리 날최 비행기 타고 지구 밖대 따뜻한 설나라에 가 살고 싶으면

현실 (그 말에 행복해서) 헤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 거지 같은 나라 평생 오지도 않을 거고, 최대한 빨리 기억에서도 지울 거야.

시월 (무들 / 일경 자조적으로) 어떻게 너랑 나랑 만났는지

현식 끌려나온 면천 끌려나온 면천

시월 을면이라는 말이 (쓰다!) 을리 같은 이색들한테 어울리기나 하나?

현실 사람은 어때 보여? 어리숙해 보여? 얼핏 보기엔 그다지 셈이 밝은 사람은 아니 거 같더데

시월 무를겠어 근데 둘네 여자 막 들으면 나한테 마을을 죽여 거 같대

현실 일이 진행되는 것에 기분이 좋아 시월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시월 너는?

현실 (안은 거 풀고) 나도 잘하고 있었지. 문서만 빼내면 문제없이 처리해준다는 사람 찾아 놓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협착도 줄 있으려나?

시월 딸히 쓰는 거 같지 않더란

현실, 갑자기 소리 내 웃는다.

시월 뭐야?

현실 우습잖아. 오빠 이런 꿩꿍이 가진 것도 모르고 감자전 해먹인 게.

시월 입 다물어.

현실, 입 쌀룩해 보이고

시월, 방문 열고 나간다. 그리고는 큰 의미 없이 하늘 한번 봤다가, 호주머니에서 담배 꺼내 불붙이려는데 스탠드 담뱃대 속 깨끗이 치워져 있다. 미숙이 있는 안채 쪽을 ‘쓱’ 보는.

7.

현실, 입이 찢어지게 하품하며 의자에서 일어난다.

잠에 취한 눈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

시월 어디가?

현실 어디 가겠어. 끓아떨어지려 가는 거지.

현실, 퇴장.

시월 (피식) 어제 무리했거든요.

미숙 (...)

시월 화나셨을 줄 알았는데 아침 커피 초대, 감사합니다. 뭐 저랑은 딱히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시월 을... 알고 지낸 건 꽤 됐고, 남자 여자로 정식 만난 건 일 년 정도요.

미숙 (. . .)

시월 근데 아줌마 혹시 립스틱 발랐어요?

미숙 아침부터 그럴 정신이 어딨어.

시월 조금 진해 보이길래. (피식) 남자가 이래요. 둔하고, 헛다리 잘 짚고.

미숙 (...)

시월 우리 친해진 거 같죠? 말도 좀 길게 하는 거 같고. 시시한 얘기도 하고.

미숙 오랜만이야.

시월 뭐가요?

미숙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누군가랑 얘기하며 커피 마시는 거.

시월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뺏겨 아쉽다는 거예요?

미숙 편할 대로 생각해.

미숙과 시월, 가볍게 웃는다.

시월 여기서 살며 쭈욱 혼자였어요? 아줌마 고운데. 아니 그런 건 둘째치고, 누군가 안고 싶지 않았어요?

미숙 (애써 당황함 감추며) 우리가 나눌 얘긴 아닌 거 같다.

시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를 이 집에 가둬두는 사람 같아 그랬으니까.

미숙, 커피 한 모금 마신다. 그런데 커피잔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난다. 아니, 이전에 마셨던 입술 자국까지 묻어있다. 당황스러운. 시월의 눈치를 살피며 급히 지우는.

시월 아침에 뉴스 봤어요?

미숙 아니.

시월 눈이 온다네요. 제법 많이 내린대요.

미숙 그래?

시월 눈 좋아해요?

미숙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 그냥... 계절의 자연스러운 현상. 그 정도로 생각해.

시월 아줌마도 참, 나만큼이나 재미없는 사람이네. (사이) 근데 나는... 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이 겨울이 싫어요.

미숙 (...)

미술 (. . .)

시월 세상으로부터

8.

평상에 미숙 시월 현실 순서로 앉아있다(마치 한 남자를 두고 양옆에 여자가 앉은 모양새). 함박눈이다. 한참을 평평 내렸는지, 마당에도 제법 많이 쌓여있다.

미숙 딱히 둔 틀 있는 없어요.

미술 (조금 단호히) 편해지면요.

근데 돈 들일 없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미술 은행 이자도 있고

현실 (화색) 요즘 같은 저금리에 이자로 생활이 될 정도면 제법 많이 들어있나 보네요?

미술 혁신을 본다

현실 그 시선이 불편하다

미숙 돈 필요해요?

시월 너 그만해!

현실, 무어라 대꾸하려는데 시월의 표정에 깨깽.

시월 미안해요. 없이 살았거든요. 쟤도 나도.

미숙 커피숍 장사가 잘 안됐었니?

미숙 거짓이 많은 편지였구나.

미숙, 더는 말하지 않고 시선 정면.

다시 세 사람, 한동안 말없이 내리는 눈을 본다.

현실 결혼은 했어요?

미숙 (...)

현실 결혼은 했느냐고요!

미숙 한 적 없어요.

미숙 할 수가 없었어.

미숙 ...가정이 있는 남자였거든.

현실, 표나게 놀라고

시월, 애써 덤덤한 척. 하지만 내심 놀란.

미숙, 일어나며.

미숙 집중되는 질문이 부담스러워 먼저 들어가야겠다.

현실 가정이 있는 남잘 왜 만나요!

미숙 (서늘하게 보며)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현실 그건 죄에요!

미숙 그래서 이렇게 벌주고 있잖아.

미숙, 들어간다.

시월 너 왜 이렇게 오바해?

현실 모르겠어. 그냥 화가나.

9.

눈은 그쳤다.

하지만 햇살이 없어 녹지 않은 눈, 얼음이 되어가고 있다.

시월, 커다란 대야에 담긴 물 현관 밖으로 뿌린다.

그와 동시에 “안돼!”라는 미숙의 외침.

시월 아차!

미숙 꼼짝없이 같히게 됐구나.

현실 우리 같혔어요?

미숙 그렇지 않아도 군데군데 얼었던데.

현실 조심히 내려가면 안 돼요?

미숙 내려가다 고관절 크게 다친 적 있어요. 올라오다 다친 동네 사람들도 많고. 보다시피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현실 그럼 뭐야, 진짜 우리 셋, 고립된 거예요?

미숙 신나 보이네요.

- 현실 꼭 나쁜 짓 몰래 하는 기분이잖아요.
- 시월 죄송해요. 그저 대야 안 구정물만 생각했어요.
- 미숙 미리 말하지 않은 내 탓도 있어. 별수 없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 시월 동네 사람들 한동안 못 봐서 어떡해요? 핸드폰도 없으시잖아요.
- 미숙 한 며칠 출석 체크하듯 매일 와 피곤하기도 했어. 덕분에 따분한 시간을 보내보자.
- 현실 가만 보면 아줌마 오빠한테만 무지 관대한 거 같아.
- 어느새 다시 대야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다.
현실, 대문 열고 다시 물을 ‘휙’ 뿌리는.
- 미숙 뭐 하는 거예요?
- 현실 (활짝 웃으며) 뭐든 확실한 게 좋잖아요!
- 미숙, 어이없다.
현실, 시월의 콧가에 대고 속삭이며.
- 현실 어영부영할 때 녹기라도 하면 어떡해.
- 시월, 마치 모르겠다는 듯 미숙 보며 ‘으쓱’ 해 보인다.
- 현실 추워 오빠, 그만 들어가자.
- 시월 너나 들어가.
- 현실, 훌기고는 방문 ‘쾅’ 닫고 들어간다.
- 미숙 들어가 봐.
- 시월 놔둬요.
- 시월, 세워진 눈삽으로 마당 한쪽의 눈 모으기 시작한다.
- 시월 아줌마도 들어가요. 여기는 지은 죄도 있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미숙 결혼할 거니?

시월, 미숙 본다.

미숙 (빤히 보는 그 시선에 당황) 별, 별 뜻 없이 물은 말이야.

시월 그런 게 뭐 꼭 필요해요? 지금도 날마다 얼굴 보며 사는데.

미숙 그래도 여자한테 웨딩드레스는

시월 (말 받으며) 입어보고 싶었어요?

미숙, 머뭇거리다가 한숨 크게 내 쉬고는.

미숙 건드려선 안 되는 욕심이었어. 아니, 욕망이었지. 그 남잔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원 없이 뜨겁게 사랑했어. 후회 없이 사랑했어. 근데 상대는 나만큼 뜨겁지 않았어. 결국... 가정도 버리지 않았어.

시월 아이가 있었나요?

미숙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어. 근처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

시월 (...)

미숙 빠트려 죽였는지도.

시월 그리운가요?

미숙 그 얘길 듣고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어.

시월 고행이군요.

미숙 그리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언덕 위에 집을 지었어. (쓰게 웃으며) 위자료 명목으로 꽤 받았었거든.

시월 미노타우로스가 갇힌 미궁이네요.

미숙, 시월을 빤히 본다.

시월, 피식 웃으며.

시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변기에 죽치고 앓을 때 그것만큼 좋은 친구는 없죠.

시월 살아있다면요?

미숙 뭐?

시월 아니에요.

미술 (. . .)

시월, 미숙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한 발짝씩 걸어간다.

미숙, 묘하게 긴장된다.

미숙의 코앞에 선 시월, 손을 뻗고

미숙, 애써 침착하려 침을 삼킨다.

시월 (입술 근처 머리카락 떼어내며) 입술이 머리카락을 먹었네요.

미숙 (. . .)

미숙, 가슴이 뛴다. 진정이 되지 않는다.

10.

바닥에는 뜯어진 과자 몇 봉지와 종이컵, 빈 소주병이 어질러져 있다.

시월과 현실 모두 만취해 있다.

시월, 한쪽 벽에 기대 종이컵에 담긴 술 마시고 있고

현실, 그런 시월 사랑스럽게 보는.

시월 (. . .)

현실 근데 취하면 말 없는 건 꼴보기 싫어.

시월 (...)

현실 그래도 열 번 물으면 한번은 답하던 사람이 오늘은 왜 아래? 조율증 또 도

진 거야? 낮에 눈 잘 쓸고 왜 이렇게 측 처졌어?

시월 (....)

현실 더 마실 거야? (빈 소주병 흔들어 보이며) 끝났는데. (여전히 시월 말 없자) 아줌마한테 가서 재어둔 술 있는지 물어봐?

시월 (....)

현실 아니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뭐라고 좀 떠들어봐. 평소 나한테 가진 불평 불만 욕도 상관없어. 정 할 말 없으면 가나다라, ABCD도 괜찮고. (버럭) 아 성격 급한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이어 말하려는데)

급작스럽게 시월, 현실을 강압적으로 바닥에 눌히는.
싫지 않은 현실, 능글맞게 웃으며.

현실 이거였으면 진작 신호보내지.

현실, 옷 벗으려는데

시월, 현실의 손 치우고, 자신이 벗겨버린다.

현실 새로운 야동 봤어? 왜 이렇게 과격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시월 입 다물어!

시월, 이내 자신의 옷도 벗고.

거칠게 시작된 사랑은 어느덧 뜨겁다. 그렇게 한동안.

배설을 마친 시월의 작은 탄식과 함께 격렬한 움직임은 멈춘다.

시월이 위에서, 얼굴은 현실의 가슴 부근에 파묻은 모양새.

시월, 눈 지그시 감고 있다.

현실 이때가 젤 좋아. 따뜻하다...

시월 따뜻하다...

현실 (시월의 등 톡톡 두드려주며) 무거워 이제 그만 일어나.

시월 따뜻하다... 엄마야.

현실 또 왜 이래?

시월 (...)

현실 여기서 찾지 마. 자기 진짜 엄마는 (이어 말하려는데)

시월, '번뜩' 눈을 뜨는데 몹시 당황한 눈치다. 현실을 밀쳐내고, 자신도 뒤로 확 물려서는.

현실 (도리어 기막힌) 뭐야, 진짜로 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야?

시월 (...)

시월, 초점을 잃은 눈으로 거친 숨 한동안 내쉬는.

11.

외출 차림의 현실, 노란 서류봉투 미숙이 머무는 안채 쪽 '쓱' 보고는 가방에 넣는다.
시월, 담배 꺼내 입에 물려다 말고.

시월 그건 언제 빼냈는데.

현실 오빠, 나 사기 절도 합치면 5범이야. 사람 무시하지마.

시월 으스댈 것도 아니야.

현실 회사에서도 신입보다 경력직 선호하는 거 몰라?

시월 까불지 말고 조심해.

현실 내 걱정 말고 오빠나 오빠 본분에 충실해. 맘 잡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 이
음모에 끌어들인 사람 오빠니까.

그때, 안채 문 열리고 미숙 나온다. 손에는 낡은 아이젠 들려있다.

미숙 워낙 오래된 거라... (하고는 아이젠 현실에게 건네는)

현실 (받아든 아이젠 훑어보며) 정말 오래된 거네요. 날도 무뎌졌고, 녹도 슬어
있고... 버리지 왜 가지고 있어요?

미숙 죽시나 해서요.

현실, 아이젠 한쪽에 톡 던져 버린다.

현실 재워둔다고 다 내 거 아니에요. 버릴 건 버려요. 지킬 건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

미숙,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
시월, 현실을 보며 얼굴 구기는.

현실 갔다 올게.

현실, 대문 열고 나가며 퇴장.

시월 담아두지 말아요. 그냥 막 뺏고 보는 애니까.

미숙 급한 일 아니면 좀 더 녹고 가면 좋을 텐데. 아직도 경사 얼음이 덜 녹았거든.

시월 네 발로 가면 돼요.

미숙 삼한사온도 옛말인가 봐. 추위가 길다.

겨울바람 ‘쌩’ 불었다가 멀어진다.

시월 우리 얘기 들었나 본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쌩’ 불고 가는 거 보니.

미숙 귀가 빨갛다.

시월 추우면 귀부터 빨개져요.

미숙 (담배) 필려고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시월 그랬는데, 들어가 몸부터 녹일래요. 아줌마도 어서 들어가요.

시월, 담뱃갑에 담배 넣으며 방으로 들어간다.

미숙, 닫힌 방문을 잠시 보는. 그리곤 몸을 틀고 자신도 들어가려는데, 평상 위에 놓인 시월의 핸드폰 보는. 핸드폰 집고 시월의 방으로 가려다 멈칫. 잠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주변의 눈치 살피곤 핸드폰 전원 끄고 한쪽 눈 속에 파묻어 버리는.

미숙 (...)

미숙, 바닥에 떨어진 돌 하나 집어 수돗가 쪽 대야로 간다.
대야에 받아진 물은 얼음이 되어 있다. 돌로 ‘쾅쾅’ 두드려 그 얼음을 깨는.

손이 시린지 연신 ‘호호’ 입김 불면서.
마침내 깨진 대야 속 물.
미숙, 시월의 방 쪽 긴장한 표정으로 보곤, 대야 속 물을 대문 밖으로 뿌린다.

미숙 휴... (이마에 맷한 땀을 손등으로 닦는)

그때! 시월의 방문 열리고.

시월 혹시 핸드폰 못 봤어요?

미숙 (애써 태연히) 못 봤는데...

시월 (흔잣말처럼) 집히는 대로 막 집어넣더니 가방에 들어갔나 보네.

미숙 (...)

시월 근데 안 들어가고 뭐 하세요?

미숙 아, 어... 이제 들어가려고.

시월 아줌마도 귀가 빨개졌네요.

미숙 나도 추우면 귀부터 빨개지거든.

시월, 괜히 마음이 좀 그런.

미숙, 그런 시월의 맘도 모르고.

미숙 괜찮으면 저녁 같이할래?

시월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적의 가득한 눈빛으로) 좋아요.

시월, 말 끝나기 무섭게 방문 ‘쾅’ 닫는다.

11.

식탁 위에는 접시에 담긴 스테이크.

시월은 평상복이지만

미숙은 (너무 튀지는 않지만) 꽤 차려입은 모양새.

시월 무슨 날이예요? 지나치게 근사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쿠리닝이 아니라 자켓이라도 걸치고 올걸. 지금이라고 갔다 와요?

미숙 (피식 웃고는) 그냥 남은 스테이크용 등심이 있길래. 그게 혼자 챙겨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 그 말은 오래돼서 맛은 없을 수도 있다는 뜻.

시월, 포크와 나이프로 고기 썰어 입에 넣고 씹는 그런 시월의 평가를 기다리는 미숙.

시월 (고기 삼키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씩' 웃으며) 더할 나위 없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아줌마도 맛있게 들어요.

미숙, 웃고는 칼질 시작.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식사하는 두 사람.

미숙 근데...

시월 말씀하세요.

미숙 그럼 넌 어떤 사람이니?

시월 무슨 질문이 그래요. 무슨 말인 줄 모르겠어요.

미숙 음... 편지에 쓴 대부분은 거짓말이잖아. 그럼 진짜 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

시월 그게 왜 궁금한지 먼저 물어도 돼요?

미숙 그냥... 너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멋쩍어서) 불편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으면 침묵해도 괜찮아.

시월, 씹던 고기 삼키곤, 미숙 잠시 보다가.

시월 나는... 아줌마처럼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험하고 더럽고 사악하게 살았어요. 아마 날 아는 사람 중,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미숙 현실씨는

시월 (말 자르며) 예외고요. 그 애만 예외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도긴개간의 삶이거든요.

미숙 가족은 없니?

시월 (순간 서늘함 비쳤다가 감추며) 죽였어요.

당황한 미숙, 들고 있던 나이프 놓치고
그런 미숙을 지켜보던 시월, 뒤늦게 웃으며.

시월 설마 진짜로 죽였을까. 마음으로 죽였다고요.

미숙 상처를 많이 줬니?

시월 (흔잣말처럼) 상처라도 받아 봤음.

미숙 내가 밥맛 떨어지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시월 전혀요. 아줌마랑 있음 좋아요. 편안해요. (그러곤) 이번에 제가 물을게요.

미숙 괜히 긴장된다.

시월 죽었다고 믿는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 아들은 아줌마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숙, 시월 바라보고

시월, 고기 입에 넣고, 씹으며 (마치 심각한 질문 아니라는 듯).

시월 아줌마도 마찬가지로 불편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으면 침묵해도 괜찮아요.

미숙 나는... (작게 손 떨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며) 욕망이 꽃을 피운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랑은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어. 그걸 깨닫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난 거침없었지. (사이) 언젠가 내게 물었었지. 누군가 안고 싶지 않으냐고. 욕망의 결과인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그런 내게 다시 사랑이 가당키나 할까?

순간 ‘똑똑’ 떨어지는 눈물.

당황한 시월, 할 말이 없고.

미숙 (애써) 미안하다. 늙으면 아래. 눈물도 힘이 없는지 시도 때도 없이 흘러.

시월 일어나봐요 아줌마.

시월, 먼저 일어나고

미숙, 뒤늦게 일어나면.

시월 안아줄게요.

시월, 미숙 안아준다.

시월 여려모로 복잡하네요.

미숙 그래, 여려모로 복잡해.

안긴 미숙, 머뭇머뭇하다가 한 손으로 시월의 몸을 감싸보는.

12.

시월, 낮은 사다리에 올라가 막대로 지붕에 매달린 고드름 깨고 있고
미숙, 그런 시월을 (혹시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스레 올려다보는.

시월 그냥 보기 좋은 고드름 같아도 수가 늘어나고 힘이 세지면 지붕을 고단하게 하거든요. 그럼 결국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빡! 지붕이 내려앉아 버리죠. 자다가 종아리 쥐 나듯이 갑작스레.

미숙 이런저런 솜씨가 좋은 거 같아.

시월 남자일 때로 여자일 때로 있다잖아요. 덧붙여 어디 한 곳 꾸준히 정착 못한 대신 어깨너머로 이것저것 배워 잡다한 건 잘해요.

시월, 뜯은 고드름 한쪽에 던지고는.

시월 가방끈만 좀 길었으면 지금보다는 화사했을까요? 제 삶 말이에요.

미숙 빌려달라는 돈으론 뭘 할 거니? 후회되면, 아쉬우면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건 어때?

시월 이제 와서요?

미숙 그 나이가 어때서? 내겐 사치처럼 들리는 말이다.

시월 근데... 날 뭘 믿고 그렇게 큰돈을, 거의 아줌마의 현금 전체를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생각도 며칠 안 했잖아요.

미숙 돈을 뜯어내겠다는 목적으로 친절했던 거니?

시월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

미숙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빌려주는 거야. 믿으니까. 믿으니까 말이지.

시월 (부러 가볍게) 어리숙하다는 소리 많이 듣죠?

시월, ‘씩’ 웃어 보이고

그 웃음에 미숙도 ‘씩’ 웃는데 ‘끼이이이’ 대문 열리더니 현실 들어온다. 현실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싸늘하게 굳어지는 미숙.

현실은 마치 히말라야 등산팀처럼 완전무장 상태.

현실, 들고 있던 등산 풀대 한쪽에 던지며.

현실 혹시 아줌마 아침마다 오르막에 찬물 뿐였어요?

미숙 (애써) 무슨 소리예요 그게?

현실 마을 사방천지엔 눈도 녹도 얼음도 녹았는데, 이 집구석 오는 오르막만 변함없이 꽝꽝이잖아요. (흔잣말처럼) 할 일 없이 밑에서 노친네들이랑 지겨워 죽는 줄 알았네.

시월, 사다리에서 내려오고, 막대 한쪽에 치우며.

시월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야?

현실 그래! 따지고 보면 아줌마가 아니라 너한테 화난 거야.

시월 너? 말조심 안 해!

현실 먹을 거 없어 핸드폰 삶아 먹었니? 왜 깨둬? 안부 연락 한 번 안 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시월 네가 가져간 거 아니었어?

현실 후안무치.

시월 (피식) 어쭈? 똑똑해지는 약이라도 찾았어?

현실 비꼬지마, 말 돌리지 마!

시월 정말이야. 없어서 나도 찾았단 말이야. (미숙 보며) 그렇죠 아줌마?

미숙 (애써 침착하게) 응...

조금 허무한 현실, 평상에 걸터앉고
미숙, (핸드폰 훔친 범인이기에) 들어가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에.

미숙 좀 있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 만들어 올 테니까.

현실 싱거워 무슨 맛으로 마셔요 차를. 그냥 믹스 커피나 가져와요.

미숙, 들어가고
시월, 현실 날카롭게 보고 있다.

현실 뭐? 또 말 싸가지 없게 했다고? 이봐요 윤시월씨. 이 집에서 힘 모아 무찔러야 하는 적은 내가 아니라 (덧붙여 말하려는데)

시월, 현실의 목덜미 붙잡고 격정적으로 키스 한다.
거부하던 현실도 어느새 못지않게 달려들고.
더 달려드는 현실을 밀쳐내듯 떼놓고 평상에 앉는 시월.

현실 (숨 고르며) 또 이렇게 저버렸네.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은 시월과 현실.
앞 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로.

시월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야?

현실 오빠가. (시월 보며) 저 아줌마를 보는 오빠가. 오빠를 보는 저 아줌마가.

시월 (현실 보며) 애초에 의도한 거잖아.

현실 그래 맞아. 계획했던 거고, 계획대로 쳐唼 진행되고 있어. 순버릇 나쁜 나와 반반한 얼굴로 등쳐먹기 전문인 오빠와의 합작품. 그렇게 한밀천 쟁겨 이 거지 같은 나라 떠나기로 했지.

시월 조용히 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현실 (개의치 않고) 그런데 그냥 외로운 아줌마가 아니잖아. 그냥 돈 많은 외로운 아줌마가 아니잖아!

시월 (서늘하게) 그게 뭐?

현실 가슴에 손 얹고 정말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았다고 자신해?

시월 (...)

현실 왜 말이 없어?

시월 살가운 이웃으로 접근하기. 가진 돈 모두 뺏기. 마을에 이상한 소문 만들어 고립시키기.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여자는 참혹하게 늙어 죽으리라.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보는 시월과 현실.

시월 맞아. 넌 온전히 돈이 목적이지만, 난! 책임지지 못하고 사라진 엄마라는 여자에 대한 복수이기도 해.

그때! 현관문 열리며 미숙, 나온다.

나란히 앉은 시월과 현실의 뒷모습 굳은 얼굴로 한참을 보는.

불끈 쌤솟은 질투심을 억누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미숙 (...)

13.

갑자기 ‘벌컥’ 열리는 문.

소리에 반쯤 겹쳐서 누워있던 시월과 현실, 돌아보면

문을 연 사람은 미숙이고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불쾌감이 얼굴에 번져 있다.

시월, 일어나 앉고

현실, 미숙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현실은 아래위 속옷 차림이다(젊고 탄력 있는 자신의 몸 보란 듯이).

미숙, 힐끔 보고는 시선 아래로 내리는.

현실 고상한 아줌마답지 않게 이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나 없고 오빠 혼자 있을 땐 이렇게 막 열어젖혀요?

시월 (미숙 보며) 무슨 일이세요?

미숙, 작게 숨 고르며.

미숙 마을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이에요.

시월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미숙 괜찮아.

현실 계속하세요.

미숙 그쪽 짓이죠?

현실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무슨 짓이요?

미숙 내 과거... 떠벌린 거.

현실 무슨 과거요?

미숙 ...내가, 가정 있는 남자 훔친 거. 그 남자랑 아이 낳은 거.

현실 맞아요. 그 밑에서 술 먹는 거 말고 할 게 뭐 있어. 술 한잔 들어가니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 아줌마 얘기도 했어요. 나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줄 알았네.

미숙 (이 악물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는 미숙과 현실.

미숙 내가 얘를 버렸다며.

현실 미안해요. 일전에 두 사람 대화 엿들었어요. 아무튼 결론은... 버렸잖아요.

미숙 뻣긴 거야.

현실 의지 문제죠. 의지만 있었다면 훔쳐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미숙 (...)

현실 뒤늦게 찾지도 않았잖아요.

미숙 죽었다고 했잖아!

현실 저수지 물 안에 들어가 시체라도 건져 올렸나요?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미숙 사람들이 그랬어.

현실 소문일 뿐이죠.

대충 상황이 짐작되는 시월, 현실의 팔목 잡아당기며.

시월 (. . .)

현실 폭탄은 내 손에 있어. 다 터트려? 겁날 거 없어.

시월, 신경질적으로 잡은 팔 놀는.

그때! 미숙,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 내 웃는다.

그렇게 한동안 웃다가 돌연 굳어져서는.

미숙 도돌이표가 됐네요 그쪽 덕분에.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은 외지인에게 냉담해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일정 부분 이해도 돼요. 젊은 여자가 마을에서 가장 비싼 땅에 집을 짓고 어느 날 들어왔으니. 소문이 많았죠.

현실 (. . .)

미숙 그쪽이 뱉어놓고 온 말은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 지금 날 천하의 화냥년으로 만들어 놨어요.

현실 애초에 외로워지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고마워해야죠. 던불여 사람들 몰려오는 거 귀찮다고도 했잖아요

미술 혼자 노령보다가 숟가시월과 시선 마주치고

현실 그 시선 놓치지 않고 보고 있더

현실 아줌마 알고 보면 찬 모순되어리예요

미술 그걸 또 물습 말이죠

현실 소문에 그렇게 거짓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아줌마가 믿고 있는 그 소문도 의심해어야죠

미술 ()

시월 (버럭) 그만 안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월, 안 보는 체 미숙의 표정 살피는.

미숙 죽었어.

현실 어떤 근거로요?

미숙 살았다면 날 잡으려 왔겠지.

시월 (...)

미숙 살리든 죽이든 한 번은 보고 싶었을 테니까.

침묵.

미숙 최대한 빨리 이 집을 떠나요.

현실 싫다면요?

미숙 (내리깔고 서늘하게) 그럼 내가 널 없애버릴지도 몰라!

미숙, ‘쾅’ 문 닫고 사라지고.

문이 닫힘과 동시에

시월, 현실의 뺨을 매섭게 후려갈긴다.

현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좋다고 매달리니까 막 대해도 될 거 같니?

시월 네가 할 말 아니야. 내가 할 소리지.

현실 별안간 없던 일 한 거야? 우리 늘 이렇게 작업했잖아. 내가 소문내면 옆에 서 넌 부추기고. 그런데 이번엔 왜 이렇게 유별날까?

시월 날... 벌거벗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현실 (...)

시월 내 치부를! 허락도 없이 온천지에 떠벌리고 온 거니까!

현실 (...)

시월 너는 가난했지만, 부모 죽기 전까진 애정 받으며 컸다지. 그런 네가 월 알아. 월 안다고 날 위하는 척 대단한 전사라도 되는 듯 설치는 거야. 꼴 같지 않고 역겹게.

현실 사랑하니까.

그리곤 현실, 발정 난 짐승처럼 시월에게 달려들고
시월, 그런 현실을 밀쳐내고
다시 달려들고 밀쳐내기 몇 번 이어지다가.

시월 차라리 짐승을 찾지 그래?

현실 개자식!

시월, 한쪽에 내려놓은 담뱃갑 챙겨 일어나는데.

현실 나보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물은 적 있지? 나도 알아. 내가 예민한 거. 알 수밖에. 작정하고 그렇게 굴었으니까.

시월 (걸음 멈추고 내려다보며) 이유가 뭐야?

현실 이유가 뭐냐고? (서늘하게 보다가) 널 보는 저 여자의 눈이, 내가 널 볼 때의 눈과 같으니까.

시월, 그 말에 충격받아 저도 모르게 입이 살짝 벌어지는.

현실 윤시월, 정신 똑똑이 차려! 너는 저 여자한테서 때때로 어떤 모성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잔 아니야. 저 여잔, 널 통해서 억누르고 산 그걸

시월 (말 자르며 / 결국 터져서) 죽여버리기 전에 입 닦쳐 이 미친년아!

14.

현실이 죽어있다. 죽은 현실은 마당 한가운데 평온한 자세로 눕혀져 있고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미숙과 시월.
한참을 보다가.

시월 삽 있어요?

미숙, 창고에서 삽 꺼내오고.

받아든 시월, 언 땅을 깨기 시작한다.

날은 어느새 저물어가고

시간이 경과한 만큼 땅은 죽은 현실을 눕히기에 충분할 만큼 파여 있다.

미숙, 시월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걸 보곤 한쪽의 수건 챙겨 닦아주려는데
시월, 신경질적으로 밀치며.

시월 거치적거리지 말고 물러나 계세요.

한밤이 되었다.

현실을 묻은 땅은 다시 처음의 모습.

시월, 땅을 좀 더 고르기 위해 옆쪽의 흙을 파서 옮기려는데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 무언가는 자신의 ‘핸드폰’ .

순간 긴장하는 미숙.

시월 (핸드폰 들어 보이며)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미숙 글쎄, 나도 잘... (애써 웃으며) 실수로 떨궜나 보지.

시월 그게 아니라 혹시... (차마 물을 수가 없다)

미숙 말끝 흐르지 말고 물어.

시월 아니에요. 시답잖은 거예요. 담배 피우러 나와 설치다가 잃어버렸나 보죠.

시월, 삽 한쪽에 두고, 손바닥 털고 들어가려는데

미숙, 그런 시월을 붙잡듯.

미숙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지 않을래?

시월 생각 없어요.

미숙 그럼 미솟가루라도

시월 (서늘하게 돌아보며 / 말 자르며) 아줌마나 실컷 드세요.

시월, 문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고

미숙, 달한 시월의 방문만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그러다 이내 일그러지고, 그런한 눈에선 눈물 ‘뚝뚝’ 떨어진다.

15.

불을 켜지 않아 꺼깝한 방.
바닥에는 빈 소주병 풍굴고 있고
취한 시월, 반 정도 남은 소주 병째 한 모금 들이키고 내려놓으며.

시월 까불지 말았어야지. 그럼, 어쩌면 지금쯤 우린 비행기 기다리며 앉았을지도 몰라. 아니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을지도. (사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불행했지만, 너도 그에 못지않았다는 거 나도 알아. 너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에겐 좋은 사람이었어. 그건 인정해.

시월, 마저 남은 술 비우고는 담배 피우기 시작한다.

담배 연기는 마치 뿌연 안개처럼 작은 방을 채워나가기 시작하고.

시월 어디서 읽었는데, 프로이트라는 잘난 사람이 그랬다더군. 담배에 매달리는 건 엄마 젖을 충분히 빨지 못한 결핍의 일종이라고. (흔잣말처럼) 제까짓 게 월안다고.

시월, 담배꽁초 빈 소주병에 넣고 일어나며.

시월 참, 보여줄 게 있어.

시월, 비틀거리며, 장롱에서 커다란 가방 하나를 꺼낸다. 그리곤 지퍼를 열어 뒤집어 털털털면 수많은 돈이 우르르 쏟아져 내린다.

시월 돈이야. 너한테 소문냈냐고 문 열어젖혔던 날, 그날 마을 은행에서 찾아온 거더라. 한 푼도 남김없이 가진 현금을 탈탈 털어온 거 같더라.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멍청한 행동을 한 것일까.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지 않았을까? 죽었다고 믿는 아들에 대한. 그래서... 그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나한테 친절한 거 아닐까. (일견 서글프게 피식 웃고는) 맞아. (그건 내) 바람이야. 바람이지.

시월. 서랍 안쪽에서 칼 꺼낸다.

표정 서늘하게 변하여.

시월 죽여버리고 죽여버릴 거야. 애초 이 거지 같은 나라를 떠나는 게 목적이었으니, 그런 결말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 절반의 목표 달성이랄까. 그런데 그 전에... (눈가 붉어지며) 그 여자 입을 통해 엄마라는 소리를 한 번은 들어보고 싶어. 꼴 같지도 않은 그 말이 살아오며 왜 그렇게 그리웠는지.

시월. 저도 모르게 눈물 흘러내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은지 신경질적으로 닦고 방을 나서는.

16.

칼을 친 시월, 안채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 한가운데 미숙이 쓰러져 있다. 미숙, 무엇이 그리 고통스러운지 눈도 뜨지 못하고, 작은 신음만 내뱉고 있는. 놀란 시월, 쓰러진 미숙 흔들어 깨우며.

시월 아줌마! 괜찮아요? 구급차 불러요? 조금만 기다려요.

시월, (전화 찾기 위해) 일어나려는데
미숙, 그런 시월의 옷자락 불잡으며, 실 눈뜨며.

미숙 괜찮아. 벌 받는 중이야. 그냥... 날 방으로 옮겨주면 안 될까?

시월 (. . .)

잠시 바라보던 시월, 미숙을 들쳐 안는다. 그리곤 방으로 향하는.

눌혀진 미숙의 이마에 물수건 얹어주는 시월.

그런 시월을 안 보는 체 보는 미숙, 복잡한 모습이다.

시월 정신이 좀 들어요?

미숙 응... 건너가도 괜찮아.

시월 좀 더 있어 줄게요.

시월 제가 제때 왔네요.

미숙 술 마셨니?

시월 조금요. 아니, 취하게 마셨어요. 아줌마 때문에 취기가 순간 달아났지만.

미숙 미안하다.

시월 아줌마가 왜요?

미숙, 울먹이다가, 애써 진정하며.

미숙 그런데 왜 온 거야?

시월 그냥... 그냥 뭐하나 해서요. 그때 이후로 한동안 못 봤으니까.

미숙 네가 날 피한 거지.

시월 그렇다고 해요.

미숙 왜 물지 않니?

시월 월요?

미숙 왜 추궁하질 않아?

시월 (흔잣말처럼)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네.

그 순간 울음이 터진 미숙, 서럽게 울기 시작한다.

당황한 시월,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그저 지켜보는.

한참을 더 울곤 일어나 기대앉은 미숙, 시월 보며, 비교적 덤덤히.

미숙 싱크대 찬장을 열면 농약이 있어. 그걸 내가... 강현실 그 여자 음식에 넣었어. 죽으라고 넣었어. 근데... 진짜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죽어버릴지 몰랐어.

미숙 미웠으니까.

시월 뭐가 그렇게 미웠는데요?

미숙 (할 말은 많지만 침묵하기로) ...

시월 그리고 찬장에 그렇게 위험한 건 왜 둬요?

미숙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생각했으니까.

시월 (. . .)

미숙 그 여자 말이 맞아. 아들이... 소문으론 죽었지만, 어쩌면 정말 죽진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때때로 생각했어.

시월 (저도 모르게 날 서서) 근데 왜 찾아볼 생각도 안 했죠?

미숙 무서웠으니까. 뭐가 무서웠냐, 그 아이는 나한테 괴물이야. 괴물일 수밖에. 한 가정을 파탄 내면서도 사랑이라 믿은 괴물인 내가 만들어 낸 괴물. 그런 앨 보고 싶지 않았어. 보게 되면 역겨운 내가 계속 떠오를 테니까.

시월 그래서 여기로 도망쳐 왔잖아요.

미숙 (시월에게 이해를 구하듯) 그런데 이제 나... 그 감옥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시월 살아있다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숙 (일견 냉정히) 알 게 뭐야, 그냥 알아서 살라지. (사이) 못 냈지? 근데 나 이 집에 갇혀 벌 받을 만큼 받았어. 아이가 돌아오면 저 농약을 마시고 죽어주려고 했어. 그럼 그 아이는 자신을 버린 엄마를 향한 복수를 제 손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나 역시 죄책감이라는 올가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시월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복수 그런 게 아닌, 그저 엄마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라면요?

미숙 (...)

시월 미안은... 한가요? 보고 싶긴 해요?

미숙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 난 수십 년을 날 억누르며 살았고. (일견 반발심) 날 참아내고 내려놓으며 살았다고!

시월 알고 보면 아줌마는 지독한 에고이스트 같아요. 오직 자신의 아픔과 감내해 낸 세월만 우선인.

시월, 일어나고

미숙, 나가려는 시월의 등에 대고.

미숙 그 여자가 그러더라.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면 너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냐고. 왜 그런 의심을 해보진 않았느냐고.

시월, 순간 걸음 멈추는, 천천히 돌아보며.

시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요?

미숙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그 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을 만나면 그 여자 말처럼 한동안 의심했었어. 근데 넌 아니야.

시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미숙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내가,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니까.

시월 (. . .)

미숙 그럼 내가 물어보자. 윤시월, 내 아들이니?

시월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아니요.

미숙 (드러내진 않지만 그 말에 어떤 안도와 확신) 봐, 아니잖아.

미숙, 식은 물수건 시월에게 건네주며.

미숙 한 번만 더 빨아다 줄래?

시월 (. . .)

시월, 걸레 들고 나가고.

미숙, 시월이 나간 닫힌 방문을 바라본다. 그리곤 고개 돌려 화장대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곤, 매우새 가다듬는.

17.

깊은 밤.

미숙 잠들어 있고, 시월 역시 의자에 기대앉은 채 잠들어 있다.

방은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형체 구별은 가능하다.

깨어난 미숙, 천천히 일어나 앉는다. 그리곤 기대 잠든 시월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끌림처럼

미숙, ‘바르르’ 떨며 오른손을 펼친다. 펼친 손은 잠든 시월의 사타구니 방향으로.

‘꾹꾹’ 훌러나오는 울음 찾으며 미숙, 마침내 시월의 사타구니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대는.

미숙 (...)

한참을 그렇게 있던 미숙, 훌러내린 눈물 닦으며 나가고
문이 닫히자, 그제야 서서히 눈을 뜨는 시월, 참혹한 절망이다!

시월 (. . .)

18.

창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깨 미숙, 일어나는데 (의자에 앉아있던) 시월이 없다. 급한 동작으로 방문 열고 나가려다 멈칫.

미숙, 장룡에서 (너무 뒤지 않는) 원피스로 옷 갈아입고, 입술도 연하게 립스틱 칠한 후 방을 나선다. 방을 나선 미숙은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사과와 당근 꺼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자른 당근과 사과를 믹서기에 넣고 갈기 시작하는. 갈아진 사과 당근 주스를 유리컵에 담아 쟁반에 받친 후 나가는.

시월의 방 앞에선 미숙, 작게 숨 고르고는 ‘똑똑’ 하는. 하지만 반응이 없다.

미숙 자니? 자?

미숙, 돌아서 가려다가, (어떤 예감에) 다시 ‘똑똑’ 하는. 또다시 반응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이윽고 들고 있던 쟁반 놓치고, 바닥에 쏟아져 내린 당근 주스와 깨진 유리잔. 미숙, 자신의 발에 다 튀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방안은 열린 장롱과 서랍, 바닥에는 빈 소주병, 쓴아져 있는 미숙이 시월에게 준 돈, 탁자 위에는 현실에 의해 빼돌린 집문서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다.

미숙, 시월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순간 힘이 빠지고, 한참을 멍하니 섰다가, 터벅터벅 맨발로 걸어 나가, 평상에 앉는. 표정 잊은 얼굴에는 마른 눈물만.

미숙 (...)

그 상태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밤이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동 없이 앉아있는 미숙.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현실을 물었던 자리의 흙이 파여 있다.

미숙 (...)

미숙, 벌떡 일어나 흙을 손으로 파보지만 죽은 현실은 보이지 않는다. 미친 여자처럼 웃더니 집으로 들어가는 미숙. 그리곤 부엌으로 직행. 싱크대 찬장을 열고 현실에게 주었다던 그 농약 꺼내 뚜껑을 연다.

미숙 애초에 널... 이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미숙, 눈 질끔 감고 농약 들이킨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 놀라 다시 다시 끝까지 비워보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입술 ‘파르르’ 떨리는 미숙, 공포와 두려움에 훙싸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19.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세찬 바람 소리와 시월의 거친 숨소리만이 무대를 가득 메우는.

시월, 산을 오르고 있다. 등에는 죽어 ‘축’ 늘어진 현실을 들쳐 엎고서. 고단해 보인다. 그럼에도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시월 (소리) 꼭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예수님이라도 된 거 같았죠. 그럼 저 정상은 골고다 언덕일까요? (피식 웃고는) 교회도 안 다니게 생긴 놈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한쪽의 보호소에서 살았거든요.

시월, 힘에 부치는지 잠시 걸음 멈추고, 거친 숨 고르는.

시월 (소리) 아줌마를 위해 한 짓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 얘가 너무 설쳤잖아요. (사이) 아니다. 아줌마 영향도 있어요. 아줌마가 너무 미워하니 저도 미웠나 봐요. (사이) 그것도 아니다. 아줌마를 너무 미워하니 저도 미웠나 봐요. 아줌마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인데.

시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저만치 흐릿하게나마 정상이 보이는 듯도 하다.

시월 (소리) 내 인생이 외로웠던 만큼 아줌마도 외롭길 바랐어요. 그래서 나 좋다는 현실이를 끌어들였어요. 아줌마의 전부를 뺐겠다는 심정으로. 그런 의도로 아줌마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친절한 거였어요. 근데...

시월,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 걷는 것 같다. 정상이 가까워진다.

시월 (소리) 아줌마와의 시간이 불행하게도 좋았던 거 같아요. 아줌마는 다른 마음이었지만, 그게 다른 마음인지 몰랐던 저는... 잠시나마 따뜻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 없고, 후회도 없어요. 물론 현실이한테는 미안해요.

정상에 도착했다.

시월, 조심스럽게 현실을 바닥에 눌힌다. 그리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르는.

시월 (소리) 미안함은... 죄책감은 제가 이고 갈게요. 그러니 아줌마는 예전처럼

그냥 사세요. 소문이 당장은 괴롭게 할 테지만, 결국은 사라지겠죠. 아줌마는 좋은 사람니까.

시월, 눕혀져 있는 현실 옆에 앉는다.

그곳에서는 반대편 언덕 위에 위치한 미숙의 집이 보인다.

시월 (소리) 삶의 동력을 또다시 잃었거든 훌연히 떠난 저에 대한 원망을 원로로 삼으세요. 그게, 진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보다는 나을 테니까.

시월, 품에서 편지를 적은 종이 꺼내고, 동시에 담배와 라이터도 꺼낸다.

시월 (소리) 엄마라는 소리를 결국 한번을 들어보지 못했네요. (사이) 덧붙여 이 편지는 아줌마 집으로 가던 때와는 달리 붙이지 못할 테고.

시월, 편지에 불을 붙인다. 순식간에 타기 시작하더니 검은 재가 되어 겨울바람에 ‘휘리릭’ 날아간다. 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다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시월.

시월 (소리)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시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고 내뱉는다.

마치 담배 연기가 시월의 얼굴을 감싸는 것 같다.

시월 (나지막이 혼잣말) 엄마...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20.

푸른 새벽녘. 눈으로 뒤덮인 미숙의 마당.

스탠드 재떨이는 넘어가 있고, 시월이 머물렀던 방문은 열어 젖혀져 있고, 단시간에 마치 폐가가 된 것 같은 모양새다.

그리고! 피폐한 몰골의 미숙은 넋이 나간 모습으로 평상에 앉아있다.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한참을 앉아있던 맨발의 미숙, 천천히 일어나 시월의 방으로 들어간다. 얼마쯤 지났을까 시월의 삼각팬티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 나온다. 그리곤 다시 평상에 앉는 미숙. 문득 생각난다는 듯이 고개 들어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미숙 (소리) 윤시월

시월 (소리) 왜요?

미숙 (소리) 아니야.....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

미숙,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 새우처럼 웅크려 눕는다. 그리곤 꽉 쥐고 있던 시월의 삼각팬티를 조심스럽게 긴 원피스 속에 넣으려는 것과 동시에 무대 암전.

어둠 속. 거친 신음과 이윽고 들리는 미숙의 절규.

그 절규는 마치 새벽녘 자식을 잃은 늙은 짐승의 포효 같기도 하다.
막.